

■ 선교편지

▲사역 기관 2025. 10.1 - 2025 . 12 . 31

▲사역자 : 황경호 . 장유정 선교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5)”

▶1.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캄보디아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아이들이 선교 센터에서 글을 배우며 기도를 시작했고, 절망뿐이었던 마을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우리가 전한 빵 한 조각에 눈물 흘리며 "어쭈(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그들의 맑은 눈망울을 봅니다. 그 눈망울 속에서 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낍니다. 캄보디아는 단순히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영혼들의 안식처입니다.

▶2. 캄보디아 선교 현장의 긴박한 위기 상황

하지만 지금, 캄보디아 선교 현장은 전례 없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정치적·사회적 불안의 가속화: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에 의한 납치, 감금, 취업 사기 등 강력 사건이 급증하며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외교부가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및 경보를 발령하면서, 현지 사역자와 교민들은 심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과 고환율의 직격탄: 장기화되는 글로벌 전쟁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유가와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특히 1,450원을 상회하는 고환율은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의 가치를 절반 가까이 깎아 먹었습니다. 현지 물가는 오르는데 사역비는 줄어들어, 당장 아이들에게 줄 한 끼 식사마저 줄여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단절된 선교의 발길: 치안 불안과 경제 위기로 인해 매년 찾아오던 단기 선교팀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선교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사역들이 멈춰 서고 있으며, 현지 성도들은 "우리가 버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지상 명령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오히려 진짜 복음이 필요한 때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모두가 떠날 때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선교사의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치안 불안으로 현지 영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가 멈추면 캄보디아의 복음화도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한 걸음을 더 내디딘다면, 훗날 이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4. 캄보디아를 위한 거룩한 연대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캄보디아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기도의 동참**: 선교사와 현지 성도들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매일 1분씩 기도해 주십시오.

■ **물질의 헌신**: 고환율로 인해 부족해진 사역비를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해 주십시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상 편지나 격려의 메시지로 현지 사역자들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캄보디아의 영혼들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국 성도님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캄보디아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역 일지

▲교회 사역

- ▶ 10월: 09일 어린이. 청소년 찬양 경연대회 출전
19일 청소년 성경 암송대회
26일 주일 크리스마스 예배 준비 시작 (어린이, 청소년, 장년)
- ▶ 11월전체 02 . 09 . 16 . 23 . 30 성탄예배 준비
- ▶ 12월 21일 크리스마스 예배 (견달 태하. 블랙쁘라 호산나)
28일 크리스마스 예배 (깜뽕툼 교회)
31일 송구 영신 예배

▲단기 선교팀 사역

- ▶ 11월 30 - 12월 4일 서울 새소망교회
- ▶ 12월 27 - 12월 30일 여수글로벌 미래컬 교회

▲캄보디아 장로교 독노회 사역

- ▶ 10월 13일 독노회 감사
21일 노회 준비 위원 모임
28일 캄보디아 장로회 독노회 정기 모임(24회기)
- ▶ 11월 11일 독노회 친구임원 인수인계

27일 노회 시찰, 부서 , 위원회 연석회의

▶12월

01일, 9일, 16일, 22일 노회 크리스마스 연합예배 준비 모임

23일 캄보디아 장로회 독노회 성탄 여합 예배

17 - 18 일 전쟁 국경지역 남민촌방문 및 전사자가족 방문(시소폰, 바탐방, 프봉크롬)

24일 종교부 및 국방부 방문 : 생필품 전달

31일 독노회 신년하례회준비 모임 및 임시노회 준비

▲캄보디아 장로회 선교사회

▶10월 18일 캄보디아 장로회 발전 위원회 모임

▶11월 24일 캄보디아 장로교 선교사회 총회

▲총회파송 선교사 모임

▶11월 13일 총회파송 선교사 캄보디아 지부 모임

▲기도 제목

▶쁘렉쁘라 호산나교회가 지역의 복음화에 소홀함이 없이 26년도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껀달 태하교회에 더 많은 일군이 필요 합니다. 매 주일 아이들이 200명이상 예배드리지만 교사와 일군이 많이 필요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캄보디아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젯 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선교사들이 힘을 잃지 않고 사명을 힘차게 잘 감당할수 있도록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더욱 굳건하게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이 영적, 육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딸 에스더가 졸업하고 직장애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발 할 수 있게

▶아들 윤원이가 26년 5월 졸업 후 대학진학이 순적하게 되고 하난님 마음에 합한 아들로, 믿음의 청년으로 든든히 서 가도록

▶물질 때문에 선교애 어려움당하지 않고 오로지 선교애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쁘렉쁘라 교회 예배 모습



컨달 태하 교회 예배



쁘렉쁘라 교회 성탄 예배



견달 태하 교회 성탄 예배



노회 성탄 연합 예배



노회 어린이 경연대회



여수 미라클 교회 단기 사역



난민촌 방문



전사자 가족 위로 방문

